

07월 민동회비 납부 회원[439명]

납부해주시는 회비는 민주동우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정성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회비납부 안내는 2페이지를 참조하세요!

62학번	노향기(정외)
64학번	정성현(정외) 1
66학번	이희원(철학) 1
68학번	서정규(경영) 양재덕(사학) 유태준(국문) 조성우(행정) 4
69학번	김윤겸(철학) 이장희(법학) 2
70학번	박세희(법학) 1
71학번	정세균(법학) 1
72학번	김성곤(사학) 안희옥(국문) 정락용(경제) 3
73학번	강치원(사학) 김성수(교육) 도천수(철학) 신계철(임학) 심성보(교육) 최정섭(신방) 6
74학번	김평호(사학) 설 훈(사학) 신계륜(행정) 신태식(교육) 장동훈(행정) 최규엽(독문) 최재일(교육) 7
75학번	배용태(행정) 이상민(사학) 이상진(전기) 정경연(정외) 조성우(임학) 천상만(행정) 6
76학번	김성만(사회) 김영칠(정외) 김현식(법학) 백만승(신방) 소영진(행정) 송일준(사회) 엄주웅(경제) 오상석(경제) 이명식(행정) 이승환(경제) 허현희(정외) 홍수우(중문) 12
77학번	김대희(전자) 김동광(독문) 김정훈(정외) 박선오(사회) 백병규(철학) 송광의(경제) 염태정(불문) 유권종(철학) 이경재(행정) 이부균(법학) 이상학(경제) 이하경(경제) 전병현(정외) 전 성(정외) 정쌍은(농경) 정태현(경영) 황남준(정외) 17
78학번	강성호(사학) 권형태(사학) 김광경 송현근(사회) 김종필(경제) 김진기(정외) 박용준(경제) 손동원(산공) 유재완(경제) 유재욱(사학) 이강빈(철학) 이구태(사학) 전영하(법학) 조영부(산공) 천봉운(경제) 한철호(사학) 15
79학번	곽내혁(철학) 김유천(농학) 김정일(수학) 남수원(정외) 노희찬(정외) 박민서(사학) 박한용(사학) 배재국(수학) 안정언(사회) 안태웅(경영) 양동주(철학) 예종영(정외) 이상현(경영) 이상훈(수교) 이정심(수학) 이종찬(영문) 16
80학번	강난희(수학) 강유성(사회) 강준원(사회) 김서규(교육) 김선중(농학) 김성윤(정외) 김성일(토목) 김영수(경제) 김영중(정외) 김희근(경제) 남영숙(경제) 안선덕(국문) 양창욱(사회) 유용화(사학) 이동진(영문) 이재준(경제) 이재형(영문) 임승현(원예) 임현주(정외) 정방각(사회) 정영석(철학) 진창원(법학) 하종근(경외) 한선모(중문) 홍기원(재료) 황평우(고미) 26
81학번	강영식(사학) 강전관(법학) 강정모(축산) 길기관(철학) 김계순(수학) 김대성(경영) 김영준(영문) 김원수(정외) 김준희(심리) 김하동(경제) 맹찬호(경제) 박구현(사학) 김영준(영문) 김원수(정외) 김준희(심리) 김하동(경제) 맹찬호(경제) 박구현(사학) 박기정(사학) 박기종(신방) 박구현(경계) 박병우(철학) 박선희(사회) 박정용(법학) 박종현(사회) 박태원(산공) 박선기(사학) 서상목(통계) 송종환(교육) 신동일(정외)

87학번	신수현(사회) 우수홍(농학) 윤종혁(교육) 이범재(철학) 이성환(사회) 이수봉(사회) 이시우(철학) 이영동(농학) 이영훈(경제) 이재구(사학) 임동익(통계) 임선수(경제) 전해철(법학) 정규병(사회) 정덕수(재료) 정웅정(영문) 조경현(사회) 조응원(수학) 최성록(국문) 안상주(신방) 홍주희(수학) 45
88학번	강영종(경영) 강지훈(노문) 고영학(법학) 공영택(경제) 권상진(수교) 김병국(사회) 김병성(사학) 김봉환(국문) 김영국(법학) 김형욱(정외) 김효웅(경영) 나영명(국문) 민영권(생물) 박덕용(사학) 박동수(영문) 박명주(정외) 박승현(경제) 박용수(사학) 석영철(심리) 손방의(행정) 신정훈(신방) 유병환(경영) 운정철(독문) 이경상(체교) 이원욱(법학) 이은택(신방) 이재순(국문) 이주호(사회) 이택봉(국교) 임진수(철학) 강동환(사학) 전문규(국교) 정근의(국문) 조민희(교육) 조유석(정외) 조현모(영문) 주 덕(통계) 지민규(국교) 최형수(경제) 한상현(수교) 함병찬(국문) 하인한(정외) 황경욱(사회) 43
89학번	김승만(경영) 김종곤(언어) 남궁명화(교육) 박시중(심리) 성열관(교육) 신성현(영교) 신창훈(농경) 오은지(국문) 이경우(경영) 이창원(사회) 이해경(간호) 임신원(경제) 장윤열(전산) 최용택(동사) 최진환(체교) 허 소(법학) 허 영(사회) 17
90학번	김영희(국교) 김의중(국문) 김형준(경제) 박경철(경영) 박진관(국교) 심시보(경영) 안경일(축산) 이지은(국문) 이희배(독문) 장성봉(전산) 최종준(체교) 최중보(언어) 12
91학번	김경아(농생) 김명수(중문) 김종진(법학) 박신경(국문) 박양신(경영) 손성현(경영) 여진우(법학) 이종서(사회) 이준(농경) 임야언(식품) 10
92학번	강권찬(경외) 고재규(신방) 김동근(경제) 김우진(한사) 김종명(의학) 백승은(동사) 신명철(경제) 이병한(심리) 8
93학번	김은수(통계) 남태섭(서문) 서홍준(기한) 이상운(경영) 전택기(통계) 한상우(법학) 허성민(통계) 7
94학번	문유심(한국사) 하주희(법학) 2
95학번	김태훈(정외) 손승화(정외) 이동근(전파) 이원병(통계) 이준철(정외) 5
96학번	김용선(정외) 1
97학번	장성혁(화공) 1
98학번	박재익(산공) 1
99학번	안명환(물리) 1
00학번	이정은(기한) 채종원(경제) 2
01학번	강영만(검교) 최규화(국문) 2
02학번	안형우(국교) 조영관(정외) 2
03학번	김자윤(사회) 1
05학번	이종권(정외) 1
06학번	이정우(행정) 1
09학번	정유현(물리) 1
특별회원	조민우 송귀철 2
재능기부	이석구세무사(경영86) 1
학번미상	이병석 이상우 2
7월 신규회원[1명]	한석주(교육85)
인터넷으로 가입	http://goo.gl/C87XuZ



민족고대

2016 07



8월 일정

故 김승교님(법학86) 1주기 추모행사 안내

2016년 8월 27일 (토) 오후 6시, 학교 민주광장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7월 소식지

<http://facebook.com/groups/kumindong>

발 행 처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사무국

모바일을 이용한 회원가입

[후원계좌]

발 행 일 2016년 7월, 2016-7호

<http://goo.gl/C87XuZ>

은행 국민은행

발 행 인 박래군

카페

계좌 284001-04-113390

편집 김성곤, 남궁명화

<http://cafe.daum.net/kumindong>

예금주 사)고려민주기념사업회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3

페이스북(고대민주동우회 페이스북 지부)

후원문의 010-6262-7470

고려대 교우회관 203-A호

밴드

**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되어 연말정산 시,

(우) 02841

<http://band.us/#!/band/6263647>

www.hometax.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민동 71차 정기 운영위원회 보고

일 시 2016년 7월 14일 (화) 오후 7시

참 석 박래군 회장, 박병우(81), 정진만(83), 김정기(87), 임경수(88), 남궁명화(89),
김용선(96), 안형우(02), 정유현(09), 김성곤 사무장

주요 논의사항

1 추모장학위원회 준비모임 보고

일 시 : 2017년 7월 13일 (수)

참 석 : 박민서(79), 김은진(83), 이준영(84), 심우섭(86), 사무국장 등

논의내용

- 추모심사위원회와 장학위원회의 분리 운영 필요
- 추존 관련 원칙 설정
 - 가. 현 <신청 - 접수과 심사>의 절차에서 <발굴 - 추존>의 형태로 전환 (자세와 정신의 전환)
 - 나. 현 <열사 - 고인>의 구분 삭제, 누구나 동의하고 소중이 여길 수 있는 명칭으로 대체
 - 다. 정파와 정견, 사상에 구애받지 않음

2 민동추모제 보고

참 석 : 유가족 13, 회원 66, 내빈 16, 재학생 다수

모 금 : 54분, 4단체 참여 총 1,410만원

지 출 : 장학금 9분 800만원, 행사비 500만원 등 1,300만원

3 2017 민동추모제 준비

- 2017년은 6.10 민주항쟁 30주년, 민동 창립 30주년
- 2017 민동추모제를 민동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기회과 집행을 위해 준비위원회 구성

4 민동발전 제안

- 어도선님(영교 81, 모교 사회봉사단 단장)의 발제

5 차기 회의

- 2016년 8월 8일 (월) 오후 7시

민주동우회 근조

2016년 7월 5일 김종명(의학92)님 부친상

사무국 활동보고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1년에 네 번 정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이어 7월 2일에 올해 두 번째
세월호분향소 지킴이활동을 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참석 회원 : 박병우(81), 강지훈(82), 조윤석(82),
김성곤(88), 남궁명화(89), 김영희(90),
김우진(92), 정태호(05)



전민동 워크숍

7월 8일과 9일,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민동에서는 진창원 전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참가대학 명단 :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동아대, 원광대, 경기대, 충남대, 건국대, 공주대, 단국대, 인제대, 경성대, 총신대, 부경대, 경성대, 서울대, 부산대, 부산외대, 조선대, 전남대, 성균관대, 재경대경민동, 재경원광대민동, 전대협동우회, 10.28기념사업회, 통일의 길 등

논의 내용

1. 상반기 세월호 진상규명 등 민주주의회복 투쟁 등 활동 평가
2. 내년 6월항쟁 30주년 사업에 각 민동이 총회 수준으로 준비하고 참여, 재학생들과 함께 행사 논의
3. '응답하라 통일세대' 통일선봉대의 밤 행사에 대해 공유. 8.15행사에 참여
4. 10.28 애학투련 30주년사업에 대해 공유, 전민동 차원에서 공동개최, 적극 참여
5. 조선대민동에서 진행 중인 '총장선거의 주인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사수를 위한 무기한 철야농성'에 전민동 차원의 각 대학민동 지지 플랑카드 게시 결의
6. 민주주의국민행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적 차원으로 준비하는 '민회'에 대해 설명과 공유
7. '사드배치 결정' 반대 및 철회에 대한 결의를 모으고, 전민동의 구체적인 투쟁형태를 모색하기로 함.



故 김관회님 묘소 참배

7월 10일(일)은 고 김관회님(경제74)의 17주기 기일이었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회원들의 묘소 참배가 있었습니다.

* 참석 회원: 김영곤(68), 김진국(74), 최재일(74), 박민서(79), 김영근(79)

아직도 끝나지 않은 5.18의 고통을 안고 사는 김동관님의 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투병중인 김동관님(정외77)은 광주민중항쟁 시 진압군으로 투입 후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 사무국 간사 남궁명화(교육89) 기고-



지난 7월 5일, 부천에 있는 김동관(정외77) 선배님의 부인인 이지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동관 선배님은 1980년 5월 20일 오전 7시 제3공수여단의 일원으로 전남대에 투입돼 진압작전에 참여하였으며 광주이후 지금까지 35년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으로 수도권에 있는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악몽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광주 진압군중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입니다.

선배님은 입학이후 유신독재정권 시절,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과 접하게 되어 고전연구회 써클활동을 하였으나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었던 선배님은 학내 상주한 사복경찰들과 첨자노릇을 하라는 꼬드김 등이 싫어 1979년 5월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써클활동으로 운동권 경력이 있어 공수부대원으로 차출돼 특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으로 배속을 받았으며 이듬해인 1980년 5월 20일 광주민중항쟁의 진압군으로 전남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배님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 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시민군을 진압하는 제3공수여단의 일원이었지만 선배님은 시민군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으며 유독 악랄하게 시민군을 살해한 하사관들에 대한 적개심을 달랠지 못하고 병영 내에서 이들 하사관과 격투극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광주시민과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해 상관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살인적인 구타도 당하였습니다.

"명령은 데모대 중에서 무장한 경우에만 사격을 하게 돼 있었어. (그런데) 얘들 특전사 요원 애들은 무차별 사격했다고, 무차별로. 내가 그걸 봤어. 무차별 사격을... '서!' 그래서 안 서면 그냥 쏴 버렸어. 무장을 했건 안 했건. 도망가면 무서워서 도망가면.
그걸 쏴 죽였어. 이 특전사 애들이. 그러니, 무차별 학살이지 무차별 학살...
나는 광주 시민을 쏘는 특전사를 쏴 죽일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차마 죽이진 못 하고... 전남대에서 광주 교도소로 이동했을 때 일이야. (시위대가) 탈취해 온 버스가 있었는데 문이 안 열려서 문을 얹지로 뺑 쳐서 열었더니, 운전수가 총을 맞았는데 의자가 뒤로 딱 제껴져 있었어. 운전수가 딱 누워있는데 살아있었어. 그런데 눈에 총알을 맞았어 눈에... 심장은 뛰더라고, 만져 보니까. 버스 앞에는 전부 총알 구멍이야. 총알이 눈에 맞았는데 심장은 살아있고.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그걸 어디 묻을 수도 없고, 살아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암매장한 게 많아, 시신 암매장 한 게... 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래서 운전수를 나무 밑에다가, 그 전남대 산 나무 밑에다가 들어다가 놓고 왔다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치료해 줄 수는 없고..."

그 후 이동했는데, 그 때 참 처참하더라고. 그 때 전두환이를 죽여야 되고 노태우도 죽여야 되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매일매일 생각하면 술이 안 끊어지는 거야 술이. 슬퍼서...

복수를 해야겠다고 불타는 게 아니라 슬퍼서 그게 슬퍼서 그들의 죽음이 슬퍼서..."

곱게만 커온 선배님이 광주이후 부대에 복귀했지만 민간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총부리를 겨눈 하사관들과의 잣은 충돌, 상관들의 살인적인 구타와 집단적인 따돌림, 탈영보고와 자살기도 등... 고귀한 영혼과 여린 가슴을 지닌 김동관 선배님에게 광주의 참상과 지옥 같은 병영생활은 너무 버거웠던 것일까. 자책감과 분노감을 이기지 못하다 선배님은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배님은 제대 후 82년 봄 복학을 하였으니 이듬해부터 휴학, 정신병원과 복학 등을 거듭한 끝에 85년 가을 가까스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그가 입원한 병원만 경희의료원, 강남 성모병원, 고대 병원, 용인정신 병원등 즐비하였는데 정신병에 대한 일반의 냉소적인 인식들이 겹쳐 초기 치료에 실패하였습니다. 평소 간경화병을 앓으시던 부친께서는 금지옥엽처럼 키운 아들이 몹쓸 병을 얻어 처절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고는 1983년 12월 화병으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선배님은 아버님의 죽음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니까 그게 죄송해서 마치 옛날 3년상 치르듯이 3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괴로움을 달랬다.”고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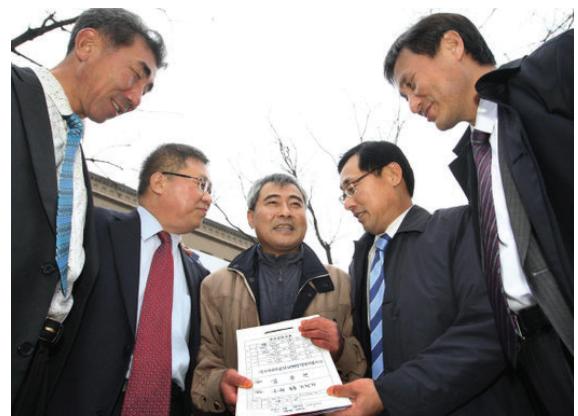
선배님에게도 잠시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1년 결혼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 주위의 도움으로 인연을 맺어 신접살림을 신림동엔가 차렸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처럼만에 찾은 정신적 육체적 평온의 시절은 그러나 1993년 아들의 출생 직후 음성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마감하게 됩니다. 신혼생활 중에도 반포에 있는 용인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광주에서 시민군을 죽였다라는 환청과 음주, 폭언과 폭행 등이 잇따르면서 상태가 심각해졌기에, 2002년 2월 선배님은 합의이혼을 합니다. “아들과 아내에게 짐이 되지 않아 헤어분하다.”면서 서로를 위해 잘한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김동관 선배님은 혼자 동두천에 살고 있으며 이지원님은 아들과 함께 부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동관 선배님의 명예회복과 군복무중 공상을 입은 군인으로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해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외과 77 동기인 황남준 선배님과 전성 선배님이 10년에 걸쳐 준비하고 재판하고 많이 애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은 2009년 12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광주 진압군 중 첫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경민군은 대학3학년인데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하고 올 3월부터 경찰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군이 우리 민동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경찰공무원 시험교재를 사고 인강을 신청해서 공부를 한다면서 우리가 보내는 유가족 장학금이 적지만 소중하게 경민군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나오는 보상금은 김동관 선배님이 혼자 생활하고 병원 치료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이지원님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경민군과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민동에서 일하면서 김동관 선배님이 투병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악몽 같은 삶을 지내고 계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원님만 만났는데 나중에 정외과 77 선배님들이 김동관 선배님을 만나러 가게 될 때 민동에서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그때까지 선배님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광주시민, 민주열사 등 승자의 시각에서 5.18 광주민중항쟁이 조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진압군의 일원으로 참여한 공수부대원이 광주 진압 후 얼마나 악몽 같은 삶을 살아왔는가를 통해 광주항쟁의 본질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정통성 없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역사의 진보란 절대 권력 스스로 내주지 않으며 시민들이 쟁취해야 하는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 사회가 광주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의 고통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추모제에서 김두황장학금을 받은 연은정님(국교11)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매우 가치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민주열사추모제에서 세월호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고려대 민동의 김두황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장학금을 받게 됐을 땐 알바로 채워지지 않는 생활비가 충당 되겠구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더 생각을 해보니 개인적인 일에만 쓸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선배님께서 생각하기에 제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열심이니 줄 법하다고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상이 온 것은 세월호 운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주기를 준비한 시간을 돌이켜 봤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고대인 모임>(이하 세기고)과 많은 단과대 학생회와 동아리가 사람들을 모으고 거리로 나섰을 때, 유가족 간담회가 성황리에 진행됐을 때, 전학대회에서 세월호 2주기 참가 결의문이 채택될 때,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했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라고 진실을 숨기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진실과 정의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주기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작년 5월, 세기고를 만들기까지 열의를 바쳐 활동한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함께 밤을 새며 세기고 모집 글을 썼습니다.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눈물 흘리고 거리로 나선 친구들이 있었기에 고려대에서 150여 명의 학생들이 2주기를 기억하며 광화문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다고 주신 상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투여한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맑스주의를 비롯해 진보적 사상들을 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이 사회는 우리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우리는 곳곳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을 경험합니다. 역사의 뜻은 오늘날에도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민주열사추모제에서 선배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학금은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열심히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바로 채워지지 않는 제 생활에도 보태 쓰겠지만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바치는 사람들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과도 나눌까 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본적 사회 변혁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진중한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가치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쓰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페이스북 아이디 Blowing Yeon (편집자 주)

세월호 도보일지



지난 7월 23일(토)부터 26일(화)까지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온전한 선체인양,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외치며 세월호 가족과 대학생 130여명이 세월호가 인양되어 거치될 목포신항에서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팽목항을 향한 3박 4일의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세훈(자유전공13)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가하여 공동단장으로 도보단을 이끌면서 써내려간 #세월호 도보일지를 같이 나눕니다. (지면 상 요약 발췌했습니다. 원문은 페이스북 박세훈님의 담벼락을 참조하세요. <https://www.facebook.com/park.sehoon?ref=ts&fref=ts&qsefr=1>)

#세월호대학생도보순례 #1일차 단장일기

1. 세월호 대학생 도보순례는 서울과 안산에서 각각 1대의 대형버스 그리고 416가족협의회 차량, 416연대 차량, 416tv 차량 등을 포함,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이며 시작했습니다.

2. 모인 차량의 종류나 위치만 다양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전국에서 모인 청년 학생들, 이들이 기특하고 고맙다며 함께 하는 세월호 가족들뿐만 아니라 도보순례 진행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지역 활동가 등 여러 시민들도 역시 함께했습니다. 답사를 왔을 때는 허허벌판처럼 느껴졌던 목포신항이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3. 이번 도보순례의 구호는 '미수습자 수습, 온전한 선체인양, 성역 없는 진상규명'입니다. 발대식에서 무엇보다도 세월호 세대를 자임하는 416학번들의 떨린 목소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같은 떨림을 전했을 것입니다.

9. 숙소에서 저를 울린 건 일반인 생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옆에 선 것은 처음이라는 말에서부터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었는데, 죄스럽게 생각하며 솔직하고 담담한 발언을 이어가는데 같이 서 계셨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세월호 가족이 저기에도 있었던 겁니다.

#2일차 단장일기

1. 각자가 머문 자리는 각자가 치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생활에서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요. 빈틈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빈틈이 기획단도, 참가자도 모르게 새벽부터

부모님들의 손길로 메워져있었습니다.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죄송할 따름이지요...

5. 멀리서도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물심양면'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중간중간 전해지는 아이스크림, 얼음물, 여태 본 것中最 가장 무식(?)하게 생겼지만 처음 본 당혹감만큼이나 맛있는 김밥, 한 번 먹으면 또 오게 된다며 그릇의 절반 넘게 퍼주시던 돼지고기까지. 어느 것 하나 진심과 정성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3일차 단장일기

7.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는 중간중간 살펴보니 이제는 참가자들이 서로 꽤나 친해보입니다. 특히나 같은 조끼라는 스스로 없이 장난을 치기도, 끊임없이 담소를 나누기도하면서 이를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마음이 하나라서일까요. '좋은 공동체'라는 표현이나올 정도로 이제는 저만 빼고 다들 서로 친해진 것 같습니다.

8. 오늘은 '일곱시간행불그네' 대표이사의 강연을 청해듣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꼼수다' 등으로 유명한 시사평론가 김용민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16세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목도했고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배를 탄 세대로서 수많은 시대적 고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16세대, 세월호 세대는 어떻게 수많은 세월호 참사를 막아내고 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11. 간절했던 마음이 불쑥불쑥 느껴지니 밤에도 아침에도 울컥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팽목으로 갑니다.